



▲서운농장전경(원내는 곽인기사장)

탐방 / 서운농장

종업원을 내가족처럼 생각해야 한다.

양계 산업이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은 사람들이 해왔지만 현재와 같이 종업원 구인난이라는 변화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그간 국내에 밀어닥친 민주화의 바람으로 노사분규의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눈에 띄게 변화한 사회여건과,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양계농장의 구인난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일부 경영주의 경영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업원을 구한다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양계업자들에게 공통으로 부딪히게 되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본다.

이에 본지에서는 비교적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업원난에 따른 걱정을 그런대로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천안시에 소재한 채란계농장인 서운

농장(대표 : 곽인기)을 찾아보았다.

자동화시설은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기자 : 시설부터 현대화시켜 자동화계사를 아주 빈틈없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곳의 현황을 직접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곽사장 : 저는 부모님(곽노삼씨)께서 하시던 양계업을 물려받아 운

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산란계 약 5만4천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간 만성적인 불황으로 큰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동화시설을 하게된 데에는 다 불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까요. 아몽든 30대 후반에 접어든 제가 하나의 용기와 투지만 가지고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투자를 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의 바로 종업원숙소인데 여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업원 구인난이 대단히 심한 편입니다. 저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 다해도 이 사업을 유지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종업원 구하긴 어렵고, 생산비 절감은 부수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고 해서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계사설계까지 자신이 직접 해결

기자: 다른 농장과는 좀 다른 면

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계사가 시원스러워 보이는데 시공비는 어떻습니까?

곽사장: 이 계사를 신축하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바닥을 뻗 계사시설비는 대략 평당 2만5천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파이프를 사서 제작을 부탁하였더니 많은 비용이 절감 되더군요. 몇군데 농장을 모델로 선정하여 제가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선별기도 도입을 했습니다.

기자: 자동화시설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나아진 것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환경개선이 눈에 띄게 좋아져

곽사장: 그야 우선 종업원이 수자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이 무척 양호해져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가 적어 얼마나 시원합니까. 농장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

의 하나가 먼지와 악취 아닙니까. 우선 이점이 그런대로 해결되니까 불평이 줄었습니다.

기자: 결국 자동화를 하게된 동기에는 인력난 해결이 포함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곳의 종업원 관리 상황을 대략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숙소도 현대식으로 갖춰 불편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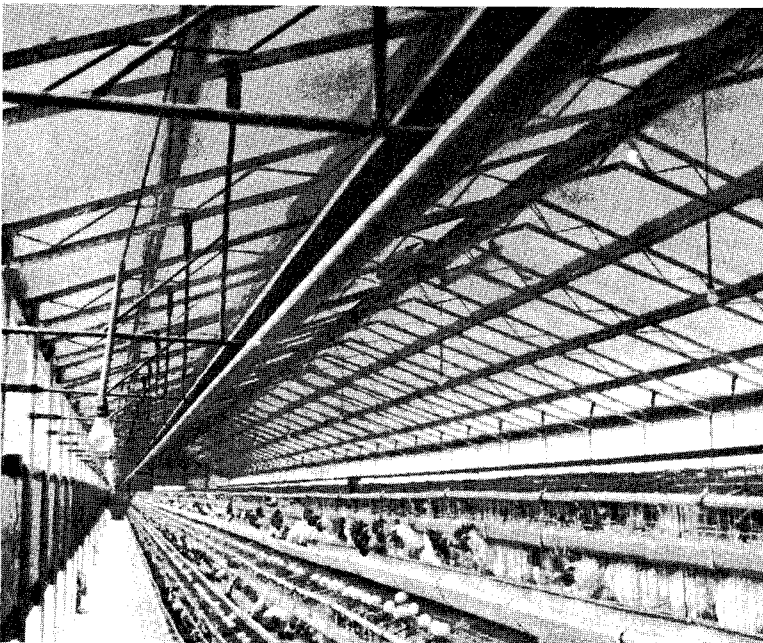
곽사장: 우선 구체적인 인력관리 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즉 임금이야기). 그리고는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생산공장의 임금체제를 도입하여 본봉과 각종 수당을 지급 그리고 종업원을 내가족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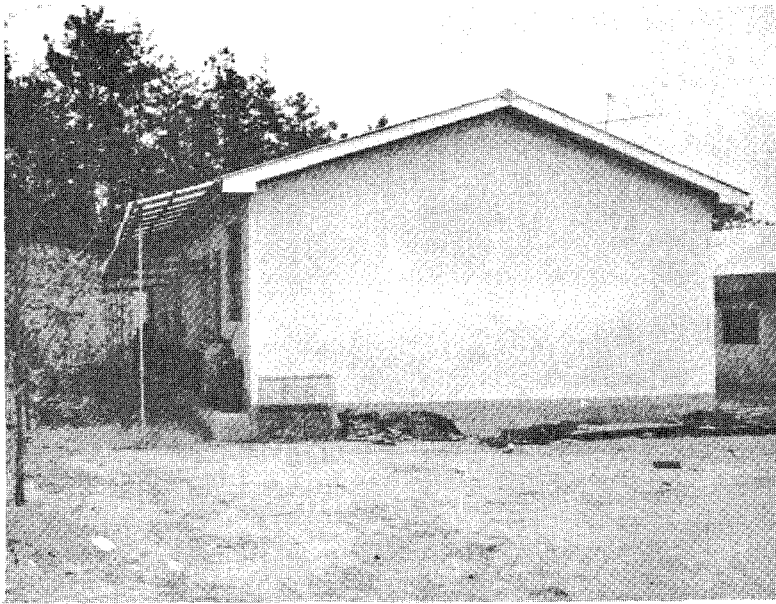
현재 저희 농장에는 종업원이 총 7명입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인데 부부는 사정상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 3명입니다. 이 숙소가 생기고 나서서 원거리 출퇴근자의 불편함이 해결되어 농물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자: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종업원들의 임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가시는지요?



▲곽사장이 직접 설계한 계사내부



▲종업원숙소(아파트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곽사장 : 얼마전까지만해도 마을 사람을 고용하였으나 어려운 점과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관리방식을 변경해서 외지사람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간급을 채택하고 있는데, 본봉+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개근수당을 합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은 도저히 어려워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산공장의 임금체계를 도입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입니다.

개근수당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무해야할 날짜를 다 채우면 특별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호봉제를 도입하여 채용시 급수를

지정하고 1년이 경과할수록 호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임금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세무문제가 복잡하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니까 우선 일한양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니까 될 수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겠다고들 합니다.

기자 : 농장에서도 일한만큼 임금을 받게 되는 제도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 놀랍니다. 지금도 종업원난으로 고충을 느끼고 계신 양축가에게 하실말씀이 있다면?

곽사장 : 제 경험으로는 종업원을 가족이라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급

만 올려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즉 사람은 문화가 발전할수록 환경을 고려하게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신중히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모든 양계업자가 아는 바 대로 1차산업 분야의 희망이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인력수준도 2차, 3차 산업에게 쉽게 흡수당하여 질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내가 돈을 가진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기 보다는 그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임금은 타산업이 변화해가는 추이에 쫓아서 계산을 해야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면서 자금여력이 쌓일때마다 자동화시설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누가 그 많은 자금투자하여 돈 벌기 싫어하겠는가마는 어찌보면 그 길이 아니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막대한 기계설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옛날과는 달리 경제구조도 많이 변하여 돈만있으면 인력수급은 언제라도 가능한 시대는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점차 인력난은 심화되어갈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서운농장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저마다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금인상만으로 종업원 구인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또다른 업계의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며 효과적인 개선책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내가죽처럼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 〈用〉